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3년 11월 2일 22시에
알바노 라지알레(로마)의 모원 공동체에서
쥬셉피나, 마리아 파티마 데 나르도 수녀님께서
94세의 일기로 67년의 수도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에 파티마 수녀님을 맡겨드리며,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시편 구절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성실하게 빠스또렐라로서 살아온 수녀님의 삶 안에 자리한 신앙과 희망의 인장임을 깨닫습니다.

쥬셉피나는 1929년 8월 13일 카르디날레(카탄자로)에서 태어났으며 1929년 8월 17일 출생지 바리의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9일 젠자노(로마)에 입회하였고 1955년 9월 2일에 알바노 라지알레-모원에서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56년 9월 3일 알바노-모원에서 첫서원을 하시면서 마리아 파티마라는 수도명을 받으셨습니다. 1961년 9월 3일 알바노-모원(로마)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파티마 수녀님을 너그럽고 포용하는 자매로 기억합니다.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목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수녀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셨으며,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이들을 위한 일에 결코 지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기를 힘들게 보내셨지만 깊은 신앙으로 자신의 병을 견디셨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한 후에 일정기간 젠자노에 머물렀으며, 1951년에 부시 술 티리노(페스카라)와 세딜로(오리스타노) 공동체에 파견되었습니다. 1953년에 콘산돌레(페라라)로 이동하셔서 1955년 수련기 시작 전까지 머물렀습니다. 첫서원 후에 콘산돌레(페라라)로 돌아오셔서 1973년까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 스타비아의 카스텔라마레-산 안토니오(나폴리); 1975년 솔라라(모데나); 1978년 지제리아(카탄자로); 1980년 바리-성 바오로(바리) 공동체를 거치면서 주로 교리교육과 사목 협력자 양성, 유치원, 가정사목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도직을 하셨습니다.

1982년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알바노 라지알레-모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년 후에 1983년 스타테(타란토) 공동체에서 원장을 지내셨으며, 1990년 스타비아의 카스텔라마레-아눈치아텔라(나폴리) 공동체, 1998년 아벨리노-보르고 페로비아 (아벨리노) 공동체, 2001년 카스텔라마레-아눈치아텔라(나폴리) 공동체,

2006 년 로마-약사 공동체, 2007 년 라보라테 (사보나) 공동체, 2008 년 삼비아세 (카탄자로) 공동체에서 사명을 수행하셨으며, 삼비아세 공동체에서는 원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2018 년에 건강이 약해져서 알바노 라지알레 - 모원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병을 평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오늘까지 머무셨습니다.

파티마 수녀님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시간을 수녀님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매로서 지탱이 되어준 알바노 공동체 수녀님들과 직원분들의 배려와 관대함 그리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파티마 수녀님, 수녀님은 저희들에게 그리고 수녀님이 만난 모든 사람과 사목 직무를 수행하면서 돌보았던 사람들에게 선물이셨으며 이에 대해 선한 목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녀님의 전구에 맡겨드리며 성부 어전에서 평화의 선물을 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년 11 월 2 일

위령의 날에

총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